

하이닉스, 8인치 생산라인 추가축소

이천공장 M7 라인 가동중단 검토 ... 청주 M8 공장 생산도 30% 줄여

하이닉스반도체가 공급과잉 조절을 위해 채산성이 낮은 8인치(200mm 웨이퍼) 반도체 생산라인 일부를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9월16일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천 공장의 M7 라인의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청주공장의 M8 라인은 아직 다양한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는 최근 공급과잉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300mm 웨이퍼에 비해 생산효율이 30% 가량 떨어지는 200mm 웨이퍼 생산라인을 퇴출시키는 과정에 있다.

앞서 하이닉스는 7월 D램을 생산하는 미국 유진공장을 폐쇄기로 결정한 데 이어 9월 초 월 8만장의 200mm 웨이퍼를 가공하던 청주의 M9 공장의 가동을 중단키로 하고 청주 M8 공장의 물량을 30% 축소하기로 하는 등 200mm 생산에서 점차 손을 떼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9/17>